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개방화와 소득분배*

-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사례 -

김중섭(서울대 국제대학원)**

- I. 서론
- II.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소득분배
- III. 개방화와 소득분배
- IV.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사례
- V. 결론

I. 서론

전통적인 무역이론에 의하면 개방의 심화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이 증대되면 선진국들의 소득분배는 악화되며 개발도상국들의 소득분배는 개선하게 된다. 이러한 예측은 스톨퍼-사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의하면 자유무역(또는 무역개방)은 풍부한 자원에 대한 보상을 상승시키고 희소한 자원에 대한 보상을 하락시킨다. 즉,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에서 풍부한 자원인 숙련노동력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을 상승시키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들 국가에서 풍부한 자원인 비숙련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소득층인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M2085).

** Chong-Sup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ongsup@snu.ac.kr), "Globaliz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 Latin America - The Cases of Mexico and Argentina".

그러나 실제는 꼭 이론과 같이 되지는 않았다. 개방화의 심화 이후 선진국에서는 비숙련노동자에 비하여 숙련노동자의 상대임금이 상승하여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으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무역개방 이후 소득분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히 악화된 경우도 많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그 원인을 찾는 데 있다.

본 논문은 개방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이유는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력의 풍부함 등 요소부존도가 소득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모두 비숙련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로 간주될 수는 없다.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본과 노동력만을 고려한 무역모형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노동, 자본, 천연자원을 포함하는 삼요소모형을 사용하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소득분배 악화를 설명하려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소득분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고 개방화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개방화가 소득분배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하여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삼요소모형을 설명한 뒤 이를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사례에 적용시켜 분석하며,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소득분배

II.1. 라틴아메리카의 소득분배

개방화에 따른 소득분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틴

아메리카의 소득분배가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그 수준이 되었는지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에서 소득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인구의 상위 5%가 전체 국민소득의 1/4을,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1인당 국민소득이 라틴아메리카의 1/2 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보다도 나쁜 수준이다.¹⁾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상위 5%가 받는 소득이 하위 30%가 받는 소득의 3.3배에 이르러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지역별 소득분배

	1인당 국민소득	상위 5%가 받는 소득 (1)	하위 30%가 받는 소득 (2)	(1)/(2)
선진국	13,700	13	12.7	1.02
동아시아	9,600	15.9	12.2	1.30
라틴아메리카	3,550	24.8	7.5	3.31
기타 아시아	2,650	18.3	12.5	1.46
아프리카	1,050	23.8	10.2	2.33

자료: IDB(1998)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IDB(1998)은 중요한 원인들을 크게 사회·경제적인 발전수준과 자연적 여건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인 발전수준에서는 자본의 축적과 교육수준의 향상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물질 자본은 발전 초기에는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희소성으로 인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자본축적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 IDB(1998) 참조

경제가 발전하고 축적된 자본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노동에 대한 보상이 상승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교육 역시 발전 초기에는 소수 사람들만 교육을 받을 때는 교육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교육이 확대되면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이 낮아질 뿐 아니라 교육을 받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소득분배가 개선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현 발전수준으로 보았을 때 물질·인적 자본의 축적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단계는 지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와 교육으로 인한 물질·인적자본의 축적은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축적 정도와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라틴아메리카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소득불평등의 또 다른 원인인 자연적인 여건에는 천연자원의 부존도와 지리적인 위치 등이 포함된다. 라틴아메리카는 토지와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1차 산업인 농업과 광업이 발달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생산되는 열대작물은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생산방식에 적합한 작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불평등 분배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부와 소득의 불평등 분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열대기후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낮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었다는 것이다. 천연자원과 관련해서는 광물의 개발이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은 자본을 광업 쪽으로 집중시키게 되어 제조업이 성장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 노동의 수요를 창출되지 못하여 낮은 임금이 유지되며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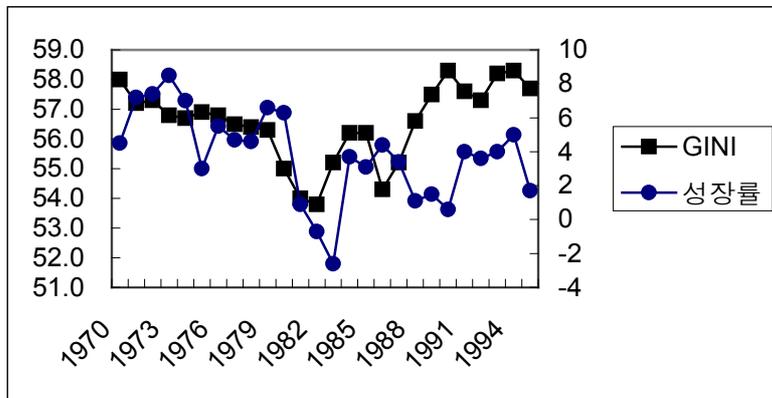
II.2. 개방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소득분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1970년대에는 거시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었다. 1970년 58.0이었던 Gini계수는 1982년에는 53.8로 하락하였다. 1981년부터 경제성장은 침체하기 시작하여 1982년에는 멕시코를 필두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외채위기에 빠져들어서 경제성장률은 1982년과 1983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경기침체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소득분배는 198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Gini계수가 1990년에는 다시 58.3으로 상승하였다.²⁾

1990년대에 들어서는 거시경제적인 안정과 1980년대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소득불평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게다가 무역개방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노동집약적인 제품수출을 촉진시켜 비숙련노동자의 상대임금을 상승시킴으로서 이 지역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림 1> 라틴아메리카의 Gini 계수: 1970-95



자료: IDB (1998), World Economic Outlook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초에 소득분배는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2) 라틴아메리카의 Lorenz곡선으로부터 추정. Londoño and Székely(1997) 참조.

고 개선되지도 않았다. Székely(2001)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17개국의 76개 가계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 1990년대에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 많은 논문들은 1980년대 말에 추진된 개방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³⁾

III. 개방화와 소득분배

개방의 심화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이 확대되면 선진국은 자본·기술집약적인 제품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비숙련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수입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자본·기술 집약적인 제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이 제품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인 자본과 숙련노동력의 소득이 상승하게 된다.⁴⁾ 이에 따라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소득분배는 악화되게 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인 비숙련노동력의 임금이 상승하여 소득분배는 개선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최근 10여년간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많이 확대되었으며 Leamer(1995)는 그 원인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Leamer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자들은 개발도상국들과의 무역확대가 선진국 내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킨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제조업 제품 수입은 선진국의 국민소득과 대비하여 2% 밖에 안 되는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선진국 내의 임금격차에 주는 영향

3) Wood(1997), Revenga(1994), Székely & Hilgert(2001) 참조

4) 이를 스톨퍼-사무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라고 한다(Krugman and Obstfeld (1996) 참조).

이 미미하기 때문이다.⁵⁾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기술변화가 선진국 내 숙련노동력과 비숙련노동력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킨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20여 년 동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숙련노동자의 상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기술편향적인 기술발전이 기인한 바 크다. 특히 이러한 기술발전의 영향이 컸던 이유는 그 기술이 여러 국가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다.⁶⁾ 기술편향적인 기술의 전파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숙련노동력의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력의 고용비중을 더 늘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비숙련노동력은 숙련노동력의 공급증가로 인해 더욱 희소한 자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하여 비숙련노동력의 상대임금이 하락하였다. 기술변화를 임금격차가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학자들은 선진국에서의 임금격차 확대가 무역개방 이후 숙련노동자의 상대임금이 상승한 개발도상국들의 사례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Acemoglu(2000)는 지난 수십년 동안 기술발전은 기술편향(skill-biased)적인 기술발전이었다고 주장한다. 기술편향적인 기술발전은 1980년대에 더욱 가속화되어, 기술과 교육에 대한 보상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교육 받은 노동자의 공급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하여 임금의 불평등이 상승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부품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아웃소싱의 증가가 미국내 숙련노동력의 상대적인 수요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기업들이 임금이 낮은 국가들의 경쟁에 대하여 비숙련노동 집약적인 기업활동을 해외로 이전하면 무역은 기업의 노동수요는 숙련노동자 쪽으로 쏠리게 된다. Feenstra & Hanson(1996)의 추정 에 의하면 아웃소싱은 1970-80년대 미국내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

5) Krugman(1995) 참조

6) Berman, et al.(1997), Acemoglu(2000) 참조

요증가에서 31-51%를 설명한다고 한다.

이처럼 선진국에서의 임금격차 확대는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확대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였지만 주요 원인은 기술편향적인 기술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임금격차와 소득분배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무역을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인 비숙련노동력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수출하여 비숙련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비숙련노동력의 상대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는 개선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소득분배는 무역개방 이후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 이유는 선진국에서의 기술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의 개방은 무역에 대한 개방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개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개방화 추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경우 그 목적이 항상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투자대상국의 국내시장에 접근성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생산기술은 개발도상국에 풍부한 비숙련노동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모국에서와 비슷한 생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날수록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임금격차는 확대되게 된다.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목적이 저임금을 이용하여 생산비를 낮추려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에서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다국적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들이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요하는 부품생산은 본국에서 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을 요하는 조립생산을 개발도상국에서 하려는 국제적 분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외국인직접투자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본과 기술이 상

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생산을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인 제품으로 이동하게 하여 숙련노동의 상대적 수요가 증가하게 하기도 하였다.⁷⁾

또 하나의 주장은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무역개방을 추진하면서는 소득불균형이 확대된 이유는 당시의 국제적인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 즉,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개방을 추진한 시기는 중국 및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진입하던 시기와 일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멕시코 같은 국가는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세계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풍부한 국가가 아니라 숙련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무역개방으로 상대적으로 풍부한 숙련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고, 즉 그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희소한 비숙련 노동자들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이 개방을 추진하였던 1960-70년대에는 개방을 추진하였던 국가들이 저임금 국가들로부터 경쟁을 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고 소득불균형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과 다른 경쟁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확대로 인해 타격을 입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멕시코만 중국과 유사한 수출구조를 갖고 있어 멕시코 소득분배의 악화는 부분적으로 중국의 수출확대로 인한 것이었을 수 있다.⁹⁾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였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개별적인 국가의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Feenstra & Hanson(1995)

8) Wood(1997)와 Lindert & Williamson(2001)

9) 김종섭(2003)

IV.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사례

IV.1. 삼 부문 삼 요소 모형

개방으로 인한 무역의 확대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자본과 노동의 두 가지 생산요소를 고려하는 모형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두 개 생산요소의 모형에서 자본이 풍부하여 자본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는 선진국과 노동이 풍부하여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으로 나눌 경우 중남미 국가들은 모두 노동이 풍부한 국가가 되며 따라서 무역을 확대할 경우 소득분배가 개선되게 된다.¹⁰⁾ 이 모형의 문제점은 생산요소를 자본과 노동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물적 및 인적), 노동(비숙련노동), 및 천연자원 등 세 가지 생산요소를 고려하려고 한다. 산업은 자본과 노동을 사용하는 제조업과 자본(물적 및 인적)과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1차 산업으로 구분한다. 제조업은 다시 자본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자본집약적인 제조업 부문(또는 숙련노동집약적인 부문)과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집약적인 부문(또는 비숙련노동집약적인 부문)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삼 개 부문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생산요소와 세 개의 산업을 가정하였을 때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서로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두 국가는 우선 요소 부존도와 수출구조가 매우 다르다. 아르헨티나는 인구에 비하여 넓고 비옥한 땅을 갖고 있어 농업과 광업 등 1차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농산물과 광물 등이 수출에서

10) 여기서의 자본은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포함한다. 노동은 주로 비숙련노동을 말하며 숙련노동은 인적자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멕시코는 노동력이 풍부하여 1차 산업보다는 제조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제조업 제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선진국과 개방화를 심화시키고 무역을 확대할 경우 이들 국가의 소득분배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르헨티나는 선진국과 무역을 확대할 경우 1차산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자본과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보수가 증가한다. 한편 제조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숙련노동자는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소득분배는 악화된다.

멕시코의 경우는 어떤가. 그 답은 멕시코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이 비숙련노동자인가 아니면 숙련노동자인가에 달려 있다. 만약 멕시코에 풍부한 노동력이 비숙련노동력이라면 앞서 언급한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따라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격차와 소득불균형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만약 멕시코에 풍부한 노동력이 숙련노동력이라면 비숙련노동자의 상대임금은 하락하여 임금격차와 소득불균형이 확대된다. 멕시코의 경우는 중국과 인도 등 비숙련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활발하게 세계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자유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의 노동력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숙련노동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과 인도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숙련된 노동력이기 때문에 무역개방 이후 비숙련노동자의 상대임금이 하락하고 소득불균형이 확대되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중국과 인도에 비해서 노동력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노동력 구조 (1990년, 단위: %)

	무학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상
Argentina	5.7	56.9	25.3	12.0
Mexico	18.8	48.5	23.4	9.2
China	29.3	34.3	34.4	2.0
India	59.0	22.9	14.1	4.1

자료: Barro and Lee (2000)

또 수출통계자료를 갖고 살펴보면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는 일차산품(A) 수출이 1991년 수출액의 70%에 이르고 있다. 1999년에는 수출 중 일차산품 비중이 6% 줄어들어 63.7%로 하락하였다.¹¹ 아르헨티나는 비숙련노동력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수출비중이 10%도 안 된다. 또 1999년 중급 및 고급기술 집약적인 제품의 수출비중 합이 아르헨티나의 경우 23.6%에 불과하여 숙련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라기보다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일차산품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1990년에 30.5%였던 일차산품의 수출비중은 1999년에는 8%로 대폭적으로 하락하였다. 멕시코의 수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중급 기술집약적인 제품(D)으로서 1990년에는 35.9%, 1999년에는 43.8%에 이르렀다. 그 다음은 고급기술집약적 제품으로서 1999년에 총수출의 27.7%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멕시코의 수출상품구조가 기술집약적인 제품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다. 첫째는 멕시코가 세계 평균에 비해서 숙련노동자가 풍부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
- 11) A. Primary commodities
 B. Labor-intensive and resource-based manufactures
 C. Manufactures with low skill and technology intensity
 D. Manufactures with medium skill and technology intensity
 E. Manufactures with high skill and technology intensity
 F. Unclassified products

뒤에서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멕시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로 인해서 기술집약적인 제품수출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표 3>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수출구조

		A	B	C	D	E	F
Argentina	91	70.0	8.4	7.0	6.2	8.0	0.4
	99	63.7	7.7	4.3	13.7	9.9	0.7
Mexico	90	30.5	8.0	7.3	35.9	16.6	1.7
	99	8.0	13.6	5.2	43.8	27.7	1.6

자료: UN COMTRADE dataset로부터 추정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간의 서로 다른 수출구조를 고려하면 개방화에 따른 무역과 투자의 확대로 두 국가는 서로 다른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두 국가의 소득분배가 모두 악화되었으나 그 이유는 서로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1차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천연자원과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숙련노동의 임금이 증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비숙련노동에 대한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멕시코에서는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수출증가로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중국과 인도 등 비숙련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의 등장으로 비숙련노동력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들의 임금이 하락하여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공통적인 원인도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면 고용도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숙련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공히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따라 숙련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숙련노동자의 상대적인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격차가 확대되게 되었다. 물론 이러

한 원인은 개방화와는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다.

IV.2. 그 밖의 원인

IV.2.1. 멕시코

앞에서 보았듯이 멕시코는 자본기술집약적인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개방은 멕시코의 자본기술집약적인 제품 수출을 증가시켜 이 부문에 많이 고용되어 있는 숙련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수입경쟁부문이나 비교역재 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켜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멕시코가 개방을 추진하였던 시기가 멕시코에게는 그리 유리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개방을 추진하였던 1980년대에는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 방글라데시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비숙련 노동력이 더 풍부한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진입하던 시기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¹²⁾ 몇몇 학자들은 이들 국가들의 출현으로 인해 멕시코를 비롯한 몇몇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별안간 세계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³⁾

개방 이후 멕시코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또 하나의 이유는 보호주의를 추구할 당시의 산업 보호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역개방이 추진되기 전에는 고용에서 비숙련노동력(또는 생산직 노동력)의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강한 보호를 받고 있었다.¹⁴⁾ 이것은 멕시코 정부가 저소득층인 비숙련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개방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자 비

12) Lindert & Williamson(2001) 참조

13) Wood(1997) 참조

14) Revenga(1994)는 1985년 개방과 함께 멕시코에서 관세가 많이 내린 산업일수록 평균임금이 상승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Hanson & Harrison(1999)는 1984년의 산업별 기술집약도와 관세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숙련노동자 비중이 높았던 산업의 관세가 제일 크게 인하되어 이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임금은 하락하였으며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되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 제조업 전체에서 비생산직노동자 대 생산직노동자의 임금비는 1984년 2.115에서 1990년에는 2.711로 상승하였다. 임금비는 높은 보호를 받고 있던 산업에서 같은 기간 동안 1.976에서 2.956으로 제일 많이 상승하였다.

<표 4> 숙련노동자 대 비숙련노동자 임금비

	모든 산업	초기 높은보호	초기 중간보호	초기 낮은 보호
1984	2.115	1.976	2.116	2.241
1985	2.241	2.234	2.217	2.269
1986	2.099	2.088	2.031	2.173
1987	2.061	2.052	2.042	2.087
1988	2.214	2.190	2.262	2.191
1989	2.471	2.633	2.328	2.461
1990	2.711	2.956	2.567	2.629

자료: Revenga (1994)

그러나 무역으로 인한 효과가 개방 이후 멕시코의 소득불평등이 확대된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다. 개방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국적기업은 일반적으로 현지 기업보다는 더 기술·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숙련노동자의 수요증가와 임금상승을 가져왔으며 비숙련노동자와 임금격차를 확대시켰다. 무역개방으로 인한 자본재가격의 하락은 현지 기업들도 보다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숙련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다국적기업들이 부품생산과 조립을 국제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즉 다국적기업들은 선진국에서의 높은 임금을 피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생산공정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국적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주로 이전하는 공정은 주로 조립공정으로서, 조립공정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집약적이지만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자본집약적인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멕시코의 생산을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인 제품으로 이동하게 하며 이에 따라 숙련노동의 상대적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¹⁵⁾

게다가 이러한 논리는 선진국에서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있는 현상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산업자본은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숙련노동자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경제활동이지만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비숙련노동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제활동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이 해외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선진국에 남아 있는 경제활동은 숙련노동자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업종이며 따라서 평균적인 숙련노동자 집약도가 상승하고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이들의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숙련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IV.2.2. 아르헨티나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아르헨티나는 비숙련노동력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며 생산요소를 3 가지로 분류하자면 오히려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비숙련노동력의 부존도는 세계평균

15) Feenstra & Hanson(1995)는 1975년과 1988년 사이의 멕시코 산업센서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숙련노동의 상대적 수요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1980년대 멕시코에서 임금 불균형이 확대된 것은 개방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다 낮으며 숙련노동력의 부족도는 세계평균에 근접한다.¹⁶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수입경쟁산업인 제조업은 비숙련노동력을 집약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수출산업인 일차산업과 비교역부문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하여 숙련노동력을 집약적으로 사용하였다.¹⁷

아르헨티나는 제조업보다는 일차산업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무역자유화는 제조업제품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일차산품과 비교역재에 대한 제조업제품의 상대가격을 하락시켜 제조업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자연자원과 숙련노동력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일차산업과 숙련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업에서 고용과 생산의 팽창을 가져왔다. 물론 GDP내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는 무역개방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경제발전이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은 GDP내에서의 비중이 1990년의 19.35%에서 2000년에는 16.90%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일차산업의 GDP내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숙련노동력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및 부동산 서비스 부문은 같은 기간에 18.59%에서 22.27%로 그 비중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변화를 가져왔다. 제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던 비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였으며 일차산업과 서비스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던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개방이 심화된 199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숙련노동자에 대한 비숙련노동자의 상대적인 임금수준은 하락하였다.¹⁸⁾

제조업은 비숙련노동력을 집약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숙련노동력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조업 안에서도 숙련노동력과 비숙련노동력 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되었다. 또 업종별로는 수입점유율이 높

16) Galiani and Sanguinetti(2000) 참조

17)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86년에 총 고용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자의 비중은 일차산업에서 19%, 제조업에서 4%,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24%였다.

18) Sanguinetti et al.(2001) 참조

은 업종일수록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커졌다. 그 이유는 비숙련노동자가 산업간 이동성이 낮아 무역개방의 타격을 심하게 받은 업종에서 비숙련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표 5> 아르헨티나의 GDP 구조 (단위: %)

연도	농림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 수도 가스	건설	소매 호텔	운송 통신	금융 부동산	행정	계
1986	5.71	1.27	20.50	1.93	6.20	17.28	6.69	19.59	20.83	100
1987	5.42	1.33	20.18	1.98	6.92	17.00	6.74	19.35	21.07	100
1988	5.96	1.43	19.65	1.88	6.84	16.65	6.75	19.38	21.46	100
1989	5.86	1.53	19.47	1.92	5.54	16.64	7.16	19.12	22.77	100
1990	6.53	1.61	19.25	2.12	4.52	17.05	7.12	18.59	23.22	100
1991	6.16	1.50	19.24	1.98	5.35	17.84	7.11	19.14	21.68	100
1992	5.67	1.53	19.72	1.98	5.78	18.17	7.33	18.90	20.91	100
1993	5.49	1.59	19.50	2.08	6.05	17.76	7.29	19.63	20.59	100
1994	5.56	1.71	19.18	2.17	6.03	17.85	7.57	20.24	19.70	100
1995	6.03	2.04	18.29	2.39	5.44	16.96	7.91	20.59	20.35	100
1996	5.65	2.02	18.48	2.36	5.60	17.36	8.03	20.74	19.76	100
1997	5.26	1.89	18.68	2.37	6.04	17.83	8.27	20.61	19.04	100
1998	5.47	1.74	18.20	2.44	6.28	17.64	8.61	21.11	18.49	100
1999	5.72	1.70	17.28	2.60	5.93	16.97	8.75	21.79	19.26	100
2000	5.61	1.88	16.90	2.79	5.29	16.70	8.90	22.27	19.66	100

자료: INDEC, Sanguinetti, Arim, and Pantano(2001)에서 재인용

또 하나의 이유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숙련노동력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1986년 제조업의 총고용에서 숙련노동자 비중은 4%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에는 7%로 증가하였다. 금융서비스에서는 같은 기간에 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24%에서 30%로 증가하였다.

<표 6> 아르헨티나의 부문별 노동력 교육수준

부문	교육수준					
	1986			1999		
	하	중	상	하	중	상
일차산업	56	25	19	59	6	35
제조업	76	21	4	60	33	7
전기, 가스, 수도	38	62	0	55	30	15
건설	87	9	4	83	14	3
도소매, 호텔, 식당	73	23	3	58	36	6
운송, 통신	73	23	4	61	33	6
금융서비스	29	48	24	20	50	30
사회 개인 서비스	64	21	15	48	28	24

자료: Sanguinetti, Arim, and Pantano(2001)에서 재인용

물론 숙련노동력의 공급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급의 증가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숙련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은 상승하였다.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앞서서도 설명하였지만 기술이 자본과 숙련노동력을 더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일부 선진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세계화에 따라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퍼져 나갔다.

V. 결론

개방과 이에 따른 무역의 확대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소득분

배를 악화시킨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자본과 노동의 두 가지 생산요소만을 고려하는 모형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물적 및 인적), 노동(비숙련노동), 및 천연자원 등 세 가지 생산요소를 고려하여 자본과 천연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1차 산업과, 자본과 숙련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자본집약적인 제조업 부문과 비숙련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생산요소와 세 개의 산업을 가정하였을 때 아르헨티나는 인구에 비하여 넓고 비옥한 땅을 갖고 있어 농업과 광업 등 1차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농산물과 광물 등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멕시코는 노동력이 풍부하여 1차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 제조업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제조업 제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선진국과 개방화를 심화시키고 무역을 확대하자 아르헨티나는 1차산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며 이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자본과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보수가 증가하였다. 한편 제조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숙련노동자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소득분배는 악화되었다. 멕시코는 새로이 세계시장에 진입한 중국과 인도 등에 비해서 숙련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개방이 이들 국가의 무역확대와 일치되면서 비숙련노동집약적인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자본집약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숙련노동자의 상대임금이 상승하여 소득불균형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개방화 이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소득분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방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의 경로는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국가마다 경제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천연자원이 많은 아르헨티나와 노동력이 풍부한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특히 대비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A two-factor model is not proper to explain the deterio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in Latin America, so we suggest a three-factor model, which includes labor, capital, and natural resources. With globalization, Argentina, a country abundant in natural resources, expanded the exports and production of agricultural sector, increasing the compensation to natural resources and skilled labor which were used intensively in that sector. Mexico increased the exports and production of skilled-labor intensive goods, increasing the compensation of skilled labor and deteriorating the income distribution.

Key Words: Income Distribution, Globalization, Skilled Labor, Unskilled Labor, Labor-Intensive Industry / 소득분배, 개방화, 숙련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노동 집약산업

논문투고일자: 2004. 10. 01

심사완료일자: 2004. 10. 31

게재확정일자: 2004. 11. 20

참고문헌

- Acemoglu, Daron(2000), "Technical Change, Inequality, and Labor Market," *NBER Working Paper* No.7800, Cambridge, MA.
- Barro, Robert J. and Jong-Wha Lee(2000), "International Data on Educational Attainment: Updates and Implications," CID Working Paper no. 42, Harvard University, <http://www.cid.harvard.edu/ciddata/ciddata.html>.
- Berman, Eli, John Bound, and Stephen Machin(1997), "Implications of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ternational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6166, Cambridge, MA.
- Bouillon, Cesar Patricio(2000), "Inequality and Mexico's Labor Market after Trade Reform,"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http://www.iadb.org/sds/doc/POVINEQUALITY.pdf>.
- de Janvry, Alain and Elisabeth Sadoulet(1999), "Growth, Poverty, and Inequality in Latin America: A Causal Analysis, 1970-94", Prepared for Conference on Social Protection and Poverty,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Feenstra, Robert C. and Gordon H. Hanson(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lative Wages: Evidence from Mexico's Maquiladoras," *NBER Working Paper* No.5122, Cambridge, MA.
- Feenstra, Robert C. and Gordon H. Hanson(1996), "Globalization, Outsourcing, and Wage Inequality," *NBER Working Paper* No.5424, Cambridge, MA.
- Galiani, Sebastian, and Pablo Sanguinetti(2000), "Wage Inequality and Trade Liberalization: Evidence from Argentina" paper presented in the Interamerican Seminar on Economics, Boston, USA.
- Gavin, Michael, and Ricardo Hausmann(1998), "Natur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in Latin America - Evidence on the Role of Geography, Climate and Natural Resource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Office of Chief Economist Working Paper* No.378.
- Harrison, Ann and Gordon Hanson(1999), "Who Gains from Trade

- Reform? Some Remaining Puzzles,” *NBER Working Paper* No.6915, Cambridge, MA.
- Krugman, Paul(1995), “Technology, Trade, and Factor Prices,” *NBER Working Paper* No.5355, Cambridge, MA.
- Krugman, Paul and Maurice Obstfeld(1997),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ractice*, United States: Addison-Wesley, pp 71-72.
- Leamer, E.(1995), “A Trade Economist’s view of U.S. wages and Globalization,” in S. Collins(ed.), *Imports, Exports and the American Worker*, Washington: Brookings.
- Lindert, Peter H. and Jeffrey G. Williamson(2001), “Does Globalization Make the World More Unequal?” *NBER Working Paper* No.8228, Cambridge, MA.
- Londoño, J. L. and M. Székely(1997), “Persistent Poverty and Excess Inequality: Latin America 1970-1995,”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Working Paper Series*, No. 357,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Reventa, Ana(1994), “Employment and Wag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The Case of Mexican Manufacturing,”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524, World Bank.
- Ros, Jaime and Nora Claudia Lustig(1999), “Trade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with Volatile Capital Inflows: Macroeconomic Consequences and Social Impacts in Mexico during the 1990s,” Paper prepared for the CEPA's conference on Globalization and Social Policy, New York.
- Sanguinetti, Pablo, Rodrigo Arim, and Juan Pantano(2001), “Changes in Production and Employment Structure and Relative Wages in Argentina and Uruguay” Universidad Torcuato Di Tella, Buenos Aires, unpublished.
- Szekely, Miguel and Marianne Hilgert(2001), “The 1990s in Latin America: Another Decade of Persistent Inequality,”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 No.410,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Szekely, Miguel(2001), “The 1990s in Latin America: Another Decade of Persistent Inequality, but with Somewhat Lower Poverty,”

Research Department Working Paper No.454,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UNCTAD(2002),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02, United Nations.

Wood, Adrian(1997), "Openness and Wage Ine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Latin American Challenge to East Asian Conventional Wisdom,"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1, No. 1, pp. 33-57.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2001), "A Globalized Market - Opportunities and Risks for the Poor," *Global Poverty Report 2001*.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1998), *Facing Up to Inequality in Latin America*,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in Latin America, 1998-99 Report.